

## 문학 읽기 연계 리텔링 강의 분석- 미셸 투르니에의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중심으로<sup>1)</sup>

황혜영<sup>2)</sup>

서원대학교

이은숙<sup>3)</sup> 정현숙<sup>4)</sup>

계명대학교

### <요약>

본 연구는 <사고와 표현<sup>2)</sup>> 수업에서 문학 작품 읽기 연계 다시 쓰기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업에서는 미셸 투르니에의 단편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읽고 조별활동에서 작품을 읽은 소감과 느낌을 나누고 각자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제시하여 조원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어 수업에서 치유의 방향으로 작품 마지막 장면 다음에 올 내용을 창작하는 작품 결말 이어쓰기 리텔링과 성찰의 방향을 독자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돌려 자기가 바라는 미래 자아상을 상상해보고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가정하는 미래 일상 미리 쓰기 리텔링을 하였다. 본 수업에서 시행한 작품 읽기 연계 리텔링은 읽기-생각하기-표현하기를 아우르는 유기적 학습방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또한 작품에 담긴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을 음미하고 작품에 담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재창작을 통해 리텔링은 치유와 회복의 가치를 만든다. 본 수업에서 시행한 미래 일상 미리 쓰기는 리텔링의 방향을 독자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바라는 미래 자아상을 생생하게 설계하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인문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주제어** : 리텔링, 다시 쓰기, 치유, 미셸 투르니에, 사고와 표현

1)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과제 번호 : NRF-2019S1A5A2A03055700)

2) 주저자, rayondor@hanmail.net

3) 교신저자, les@kmu.ac.kr

4) 공동저자, hsjeong@kmu.ac.kr

## I. 서론

본 연구는 2021학년도 2학기 <사고와 표현2>에서 읽기-생각하기-표현하기의 통합 수업으로 시행한 문학 작품 읽기 연계 다시 쓰기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대학교육에서 특정학문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주는 전공교육과 지, 덕, 체 모든 면에서 두루 건강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교양교육의 균형 있는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서기자, 2015, 287쪽). 오늘날 대학 교양교육은 지정의 모든 면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풍부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자기목적적인 활동으로서의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포괄한다(손동현, 2017, 111쪽). 오늘날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정보화시대에 지식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기존 정보가 급속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학문 간 담이 높아져 종합적인 이해가 퇴보되는 면이 있었다면 이제 복합적이고 다변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그에 적합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지식재통합이 필요하게 되었다(로버트& 미셸 루트번스타인, 2007, 5쪽).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존 지식의 전수를 탈피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능력과 유용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논리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자신과 인간,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며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교양기초교과목이 <사고와 표현>이다(황혜영, 2022). <사고와 표현>은 어느 특정 영역의 전문정보다 오늘날 사회인재이자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인적이고 통재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는 통합 학문적, 학제적 교과이다.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도 2005년 <사고와 표현>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처음 개설하여 1학기에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와 표현1>을 그리고 2학기에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와 표현2>를 개설하여 두 학기 과정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사고와 표현2』(2019) 교재는 의사소통이론, 발표와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그리고 하브루타와 토론, 자기소개와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담당하는 <사고와 표현2> 강좌 2분반에서 실시간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행한 수업을 사례로 한 것으로 본 수업의 참여 인원은 각각 23명, 19명이었고 비대면 실시간 수업방식으로 주 1회, 1회 2시간,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이 수업에서 우선 『사고와 표현2』(2019) 교재에 실린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인간은 먼 옛날부터 신화와 전설, 민담과 같은 이야기를 전수해왔다. 이러한 인류 보편적 특징으로 인간은 ‘호모 나랜스Homo Narrance’ (조성미 외, 2022, 414쪽), 이야기하는 존재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야기에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삶의 양상, 인간의 욕망과 감정, 정보와 지식, 이념이나 사상, 철학적 사유나 영성적 성찰 등 인간과 삶, 사회와 세계의 총체적인 내용들이 녹아 있으며 이야기는 지식적이고 인식적인 기능과 함께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사고와 표현2』, 2019, 30쪽)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나 자신의 직접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으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 방식으로 이해된다(김호연, 2012, 34쪽). 스토리텔링은 글이나 말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임화순, 김구, 남윤섭, 2012, 143), 서사를 녹여낸 멀티미디어 매체의 생산 및 유통과 소비 전 과정을 포함한다(조성미 외, 2022, 414쪽에서 재인용).

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의 텔링과 ‘다시’라는 의미의 접두사가 결합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原作이라 할 수 있는 고유의 이야기나 창작물에 수정 또는 재창작의

작업을 거침으로써 생산된 개작, 각색 등의 결과물을 모두 포함한다.”(유강하, 2010, 472) 스토리텔링과 리텔링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리텔링은 특히 기존에 있던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 재창작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작을 다시 쓰는 것을 지칭하는 데는 리텔링 외에도 다시 쓰기 re-writing, 각색, 재해석, 재구성, 변용, 패러디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유강하, 2017, 28-29쪽) 이 연구에서는 리텔링 혹은 다시쓰기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쓰기는 국내외에서 읽기-쓰기 연계(Michael A. Gunther, 2000 : André Lefevere, 1987 : Nancy L. Anderson and Connie Briggs, 2011 : 유강하, 2010), 상호텍스트성(Mireille Calle-Gruber, 2004), 자기탐색이나 치료와 상담(Daniel Taylor, 1996 : 이명희, 2013 : 박태진, 2012, 정성미, 2016) 등 다양한 분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리텔링은 기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의 사고를 창출하여 재해석, 창조적 생산을 할 수 있으며(이선화, 2010, 292쪽) 기존 텍스트에 담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가치의 가치를 전복시켜나가기도 한다(송기정, 2013, 115-139). 리텔링은 오늘날 서사를 활용한 치유나 자기 탐색을 읽기와 쓰기의 리터러시 학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김영희, 2012, 186). 읽기와 쓰기와 같은 리터러시 교육에 서사를 활용한 치유를 결합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글쓰기, 말하기가 단순히 기계적인 표현 활동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자아성찰의 내용적인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고명신, 2017, 245). 리텔링은 기존의 스토리를 벗겨내고 독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원작의 방향을 조정하여 이야기를 덧입히는 작업으로, 이 작업에서 읽기와 생각하기, 쓰거나 말하기의 표현하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리텔링 작업은 작품에서 받는 다양한 차원의 감동과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고 작품을 비판적인 사고로 읽고 해석하며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므로 사고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이명현,

2015, 141).

본 수업에서는 스토리텔링 이론 학습의 연장으로 20세기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의 단편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성탄절 이야기」 작품을 바탕으로 사고-독서-표현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역량강화 학습으로 리텔링을 시행하였다. 우선 수업에서 함께 투르니에 단편 텍스트 발췌를 읽고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찬찬히 작품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평균 4명 정도로 구성된 비대면 소회의실 조별 활동에서 작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조원들과 나누고 각 조원이 제안한 질문에 대해 조원들 모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또 작품의 결말에 대한 느낌이나 해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소회의실 활동을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실에서 다함께 조별 활동에서 나눈 질문들을 공유하고 함께 성찰하였다. 다음 과정에서는 작품 마지막 장면 다음에 오는 장면 이어쓰기로 작품의 결말 재구성하기를 하였다. 본 수업에서 시행한 결말 다음 단락 이어 쓰기는 원작을 변경하는 리텔링은 아니지만 작품의 결말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여 결말을 재창작하는 점에서 리텔링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수업 마지막 리텔링 활동으로는 작품을 읽고 다시 쓰기 한 것을 자신에게도 응용하여 미래의 나의 모습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보며 미래 일상의 소소한 생활 기록 쓰기를 하였다. <사고와 표현2> 수업에서 미셸 투르니에의 단편으로 읽기-생각하기-말하기-생각나누기-다시 쓰기 통합 활동을 한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문학 작품 틈새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 나누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현실의 여건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미셸 투르니에의 단편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성탄절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의 이름과 성(姓)의 상반된 의미가 그의 성장과정에서 교차적으로 전면에서 묻어나오는 양상을 극화한다. 작품은 “비도슈라는 성으로 불리면서도 세계적인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105쪽)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의 성 비도슈Bidoche은 ‘질이 나쁜 고기’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 보통명사와 동일하다. 그의 부모는 성이 지닌 뜻으로부터 아이의 운명을 보호하려는 듯 아이의 이름을 ‘가장 가볍고 가장 선율적인’ 대천사 이름인 라파엘Raphael로 짓는다. 라파엘 비도슈는 어릴 때 피아노 연주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신동으로 사교계에서 사랑을 받았지만 해가 갈수록 연습에 짓눌려 “고르지 않은 앙상한 얼굴, 툭 튀어나온 눈, 돌출된 턱, 급격히 진행되는 근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쳐야 하는 두터운 안경”으로 비웃음을 살 정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국립고등음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베네딕트와 약혼하는 시기에는 바흐의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연주하며 음악적으로 고양된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험오스러운 환경에서 싸구려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서 그는 비천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라파엘 비도슈의 이름과 성의 의미는 서로 엇치락뒤치락하며 그의 삶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인다.

작품은 성탄절 전야 나이트클럽에서 라파엘 비도슈가 마지막 곡을 연주하는 동안 일어나는 신비로운 극적 반전과 여운을 남기는 모호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성탄절 전야 공연 때에는 그가 연주를 하고 나면 피아노가 폭발하면서 싸구려 햄 다발, 크림 파이, 줄줄이 소시지, 희고 검은 순대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었

다. 하지만 마지막 곡 연주를 남겨두고 그가 움직임을 멈추자 객석의 잔인한 웃음이 가라앉고 정적이 주위에 퍼진다. 그러자 그는 바흐의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명상에 잠겨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한다. 작품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다.

“뒤이어 마지막 음표 소리가 오랜 정적 속으로 길게 이어졌다. 마치 성가가 내세에서 계속되기라도 하는 듯했다. 그때 어릿광대 음악가의 눈앞에서, 근시로 인해 어른거리는 구름 속에서 피아노의 뚜껑이 열렸다. 피아노는 폭발하지 않았고 돼지고기 제품류를 토해내지도 않았다. 어두운 색깔의 커다란 꽃송이 같은 것이 서서히 피어났다. 빛의 날개를 단 아름다운 대천사, 그를 오래 전부터 돌봐주었고 완전히 비도슈가 되지 않도록 지켜온 대천사 라파엘이 피아노 위로 날아올랐다.”(120쪽)

그동안 자신이 바라는 이상과 상반된 곡들을 연주하며 관객의 비웃음을 샀던 라파엘 비도슈는 마지막 공연에서 예정된 곡 대신 자신이 진심으로 연주하고 싶었던 바흐의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연주한다. 이때 피아노에서 어두운 빛깔의 커다란 꽃송이 같은 것이 서서히 피어나고 라파엘 대천사가 피아노 위로 올라가는 다시 환상적인 장면이 묘사된다. 피아노에서 정말 돼지고기 제품류가 나오지 않고 피아노에서 어두운 색깔의 커다란 꽃송이 같은 것이 서서히 피어나고, 대천사 라파엘이 피아노 위로 날아 올라간 것일까? ‘근시로 인해 어른거리는 구름 속에서’라는 묘사는 이 환상적인 장면이 실제로 작품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모호하게 만든다. 본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작품의 틈 혹은 모호함에서 출발하여 독자의 창조적 작품 해석과 수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그룹 활동에서 학생들은 작품을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주인공의 이름과 성과 그의 성장과정에 따른 삶의 모습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작품 마지막 장면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동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품의 결말에 대해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들을 주었다.

“비도슈는 줄곧 ‘질 나쁜 고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왔지만 작품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라파엘이 되었다.”

“라파엘 비도슈라는 성과 이름으로 살며 비도슈라는 성을 가져서인지 조금은 안타까운 청소년기를 살며 재능에 비해 아쉬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후에 라파엘이라는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능력과 성질에 따른 삶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의 결말인 것 같다.”

“유년기에는 비도슈로 살아가며 인생의 암울한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 라파엘로 성장하는 과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인생 모두 하나의 자아였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라파엘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열린 결말인 것 같습니다.”

“유년기에는 독보적인 재능으로 라파엘의 삶을 사는 듯 하였으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망이 존재하여 비도슈의 삶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연주에서 ‘대천사’라는 이름인 라파엘이 주인공을 인생의 어둠에서 구해준 것 같습니다.”

“내용 전개 중 비극도 있었지만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고, 마지막 장면엔 비도슈를 탈피하고 라파엘이라는 본연의 존재를 찾은 느낌이다.”

“원래는 피아노에서 돼지고기가 터져 나오기로 되어있지만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고 대천사 라파엘이 피어올랐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비도슈라는 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해석했다.”

“라파엘로 사는 삶을 살다가 비도슈로서의 삶을 사느라 많이 지친 그를 마지막에 라파엘이 수고했다며 위로해주는 것 같다.”

“과거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수고와 상처들을 위로해주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 속 마지막 장면은 비도슈의 삶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에게겐 비도슈가 비참한 상황에서 연주해야 했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힘든 순간이 닥쳐올 것이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면 후에는 보다 행복한 일상이 기다린다는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다.”

이상에서처럼 학생들은 주인공이 그동안 비도슈라는 이름의 뜻에 지배를 받은 듯 안타깝고 아쉬운 삶을 살다가 성탄절 공연을 계기로 자신의 성의 의미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라파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주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결말 부분에 대해 “주인공이 생각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이뤄졌다”라거나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 연주를 하던 자신에서 자신을 위한 연주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여 그동안 주인공이 남을 위한 연주를 하였다면 성탄절 마지막 연주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의견들 중에 “앞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음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해줄 것 같다.” 등과 같이 작품 결말을 통해 앞으로 라파엘 비도슈가 이 연주에서 경험한 치유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처럼 작품 결말에 대해 독자들이 다양한 해석과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학 작품 텍스트 안에는 일종의 ‘빈 구멍, 불확정성의 자리, 빈 틈’(한래희, 2013, 393)이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러한 작품의 틈에 자신의 사유의 고리를 연결하고 거기서 출발하여 작품에 창조적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고 새로운 창작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작품 맨 마지막 단락의 결말 부분에 대해 느낀 점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해석

을 나누고 난 뒤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질문 하나씩을 제안하여 조원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도출한 질문들 중에는 “라파엘 비도슈는 마지막에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 라는 성가를 연주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나 “라파엘 비도슈는 매번 무대든 올라갈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신경을 쓰며 올라갔을까?”와 같은 질문들처럼 라파엘 비도슈의 감정과 심리에 대한 질문들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비도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좋아했을까? 한번쯤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와 같이 작품 속 라파엘 비도슈의 공연을 듣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주인공이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도 이런 결말이 나왔을까?”에서처럼 주인공 이름의 의미가 작품 구성이나 결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기도 하였다. 또 “라파엘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딛고 위르비노 서커스단에서 청중들에게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라파엘이 인생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나 “마지막에 비도슈가 연주한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는 비도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노래일까?”와 같은 질문들처럼 바흐의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 곡 혹은 이 곡의 연주가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부 세션 활동 후에는 전체 세션 활동에서 각자 자신이 소그룹 활동에서 조원들에게 제안했던 질문을 채팅에 올려 서로 다른 세부 세션에서 활동하였던 학생들도 함께 질문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선 책을 읽고 드는 생각과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열린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인문학적 성찰을 각자 자신의 내면에서 길어내도록 하였다.

## 2. 작품 마지막 단락 이어쓰기

이어 수업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작품의 결말을 새롭게 창조하는 활동을 하였다. 물론 원작 자체로 작품이 완성된 것이긴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 작품에는 다른 사유가 깃들여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유의 줄기가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와 틈이 존재한다.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 해석에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텍스트는 그 자체로 미완의 구멍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카프카도 모든 텍스트는 그 자체가 미완성이어야 하며 미완의 텍스트야말로 불멸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알베르토 망구엘, 2000, 139쪽). 리텔링의 창조적 작업은 기존 작품 속 여백과 틈에 독자가 자신의 생각의 고리를 연결시켜 거기서부터 새롭게 생각의 가치를 성장시켜가는 데에 있다. 문학 작품의 이야기는 독자의 상상력 속에서 리텔링되는 과정에서 그 경계가 확장될 수 있다(이은숙, 2021, 430). 리텔링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가 읽은 작품의 이야기와 나누는 대화, 작품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원작 작품에서 출발하여 이야기의 가치를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의 내용이나 상황에 의존적이지만 기존 텍스트의 문제적 관점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창조적이다. 플루타르코스가 “사람은 배움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지어내야 한다.”(플루타르코스, 2020, 159-160쪽)고 한 것은 작품 감상과 수용이 창작과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용은 창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창조적 수용의 입장을 말해준다. 레진 드탕벨이 독서를 우리 삶과 무관한 기본전환용 독서와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고 글을 쓰게 만드는 독서로 구분하였을 때(레진 드탕벨, 2017, 202쪽) 이 두 번째 독서에서 출발하는 것이 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림이나 음악, 연극을 감상하고 좋았다, 감동적이었다거나 혹은 별로였다고 단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여기지만 작

품을 감상한 뒤 글로 풀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 그것을 이해한 것이라고 하여(유예진, 2010, 115쪽) 진정한 감상은 자기표현으로 마무리됨을 강조하였다. 본 수업에서 시행한 작품 마지막 단락 다음 이어쓰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원작의 내용을 고쳐 쓰는 다시쓰기와는 다르지만 독자가 기존 작품의 결론 부분에 사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작품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작품의 결말을 재창작하므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작품을 다시 쓰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마지막 단락 이어쓰기를 할 때 본 수업에서 글쓰기를 통한 의도적인 인식 전환과 자기 조절을 염두에 두고자 하였으며 글을 통한 성찰과 치유의 효과를 고려하여 주제 혹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하였다. 작품을 읽으면서 성찰하고 동료들과 작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결말 다음 단락 이어쓰기로 하는 다시쓰기 활동에서 방향을 치유로 정한 뒤 각자 자유롭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창안하도록 하였다. 인문학적 성찰은 그 자체로 고통에 대면하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유한한 인간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인문학은 그 자체가 고통과 대결하는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인간의 삶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은 필연적으로 치유의 힘을 갖는다.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학문이다.”(박석준 외, 2016, 62쪽)

문학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유형들이 녹아 있고, 문학 속 인물들의 상처와 기쁨, 시련과 회한, 시련 극복의 과정은 독자에게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문학 성찰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위로와 공감을 체험하고, 내적인 정서 순화를 경험하게 된다. “문학은 인간 삶을 서사와 함축을 통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권유한다. 한마디로 인간다움의 회복을 지향한다. 인간다움의 회복은 그 자체로 인간 존재에 대한 치유다.”(박석준 외, 2016, 62쪽) 문학읽기와 다시 쓰기는 그 과정이 주

는 치유의 효과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인간다움의 회복에 참여한다. “문학은 기억 저편에 있는 망각을 일깨우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이루고,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탐색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된 삶을 창조해나갈 수 있게 돕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엄찬호, 2010, 13쪽) 문학 읽기와 다시 쓰기를 통한 치유는 인문학적 성찰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치유의 방향을 담아낸 작품 마지막 단락 다음 단락 이어쓰기의 한 예를 소개한다.

“라파엘이 열린 피아노 뚜껑 위로 날아오른 대천사의 모습을 보게 된 운명적인 공연 날, 라파엘이 연주한 초라하고 낡은 서커스단의 피아노는 어느 때와 달리 감미로운 선율을 그려냈다. 언론은 '라파엘의 완벽했던 연주'라는 제목으로 라파엘의 피아노 연주를 극찬하는 기사를 냈다. 얼마 전, 라파엘이 얼빠진 원숭이 같은 얼굴로 연주를 하던 모습을 담은 기사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었다. 성탄 절 공연 날 위르비노 서커스단의 천막 아래에서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연주하는 라파엘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촬영된 각종 영상과 기사들을 통해 입소문을 타게 되었다. 영상 속 라파엘은 파렴치한 연주를 해야만 했던 라파엘이 아닌 어린 시절 천재적인 연주를 하며 기량을 뽐냈던 라파엘로 보였다. 이후 라파엘은 이곳저곳에서 인터뷰 요청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련 문의를 수도 없이 받았다.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라파엘은 결국 아내 베네딕트의 권유를 받아들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라파엘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불운한 일을 당하면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두 번째 불행을 겪으면

동정의 대상이 되지만, 불운이 수차례 계속되면 오히려 웃음을 주게 돼요. 그때부터는 가련하고 비참한 음조를 내지르기만 해도 대중의 유쾌한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저는 싸구려 반주를 이어나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가 울려 퍼졌던 그 날에 사실 저는 평소처럼 우스꽝스러운 연주를 해야 했어요. 피아노에서 정상적인 소리가 나 주었기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 이후로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라는 곡을 아름답게 연주해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연습벌레였어요. 그러던 중 파렴치한 연주를 해야 했던 비참한 현실이 벌컥 다가왔죠.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저의 노력으로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상황 자체를 극복해 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해피엔딩이 꼭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밑줄은 본 연구자가 친 것임)

위의 다시 쓰기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원래 작품에 나온 내레이션 부분을 학생이 다시 인용한 부분이다. 원작 작품에서 비도슈가 우스꽝스러운 싸구려 연주자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내레이션 부분에 “불운한 일을 당하면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두 번째 불행을 겪으면 동정의 대상이 되지만, 불운이 수차례 계속되면 오히려 웃음을 주게 된다. 그때부터는 가련하고 비참한 음조를 내지르기만 해도 대중의 유쾌한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위 다시쓰기에서는 원작의 내레이션 부분을 주인공의 성공 이후의 과거 고백에 인용하면서 원작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결말의 내용을 전환하고 있다.

다른 한 학생의 다시쓰기에서는 원작에서 라파엘 비도슈가 마지막 연주를 할 때 어두운 색상의 커다란 꽃이 피아노에서 피어나고 라파엘 대천사가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된 결말을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이 본 환상으로 규정하고 대신 원래 결말 다음에 또 다른 공연을 추가하면서 그 공연을 통

해 주인공의 과거 상처가 회복되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곡을 끝내고 눈을 뜬 비도슈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웃고 있었고, 폭발한 피아노에서는 싸구려 햄 다발, 크림 파이, 줄줄이 이어진 소시지들 그리고 등글게 감긴 회고 검은 순대가 쏟아져 나와 있었다. 그렇다. 라파엘 천사가 피아노에서 날아오른 것은 모두 그의 착각이었다. [...]”

오늘도 힘들었던 무대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도슈는 길에 있던 피아노 한 대를 발견하였다. 그는 아까의 일을 생각하며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하나둘씩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빛의 날개를 단 아름다운 대천사, 라파엘이 피아노 위로 날아올랐다. 라파엘은 비도슈를 보며 그를 위로하듯 환한 웃음을 지었다.”

즉, 이 다시쓰기 예에서는 원작 마지막 단락에서 묘사한 라파엘 천사가 피아노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환상적인 애매모호한 결말을 라파엘 비도슈가 착각한 것으로 설정한다. 대신 그 공연이 끝난 뒤 라파엘이 집으로 돌아가다 길에 놓여 있는 피아노에서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다시 연주하였을 때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듣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 라파엘 대천사가 피아노 위로 날아오르며 주인공에게 환한 위로의 미소를 지어준 것으로 마무리하여 원작의 결말을 치유와 회복의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번 결론 다음 이어쓰기는 독자가 작품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작품을 새롭게 완성하는 창작 체험이다. 다음은 결론 다음 단락 이어쓰기 후 학생들이 느낀 점으로 적어준 의견들이다.

“항상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결론을 보고 ‘아 그냥 이렇게 끝났구나’ 하고 결론

을 아무 생각 없이 수궁하곤 했었는데 독자가 마무리 하는 결말이라는 게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다.”

“사실 열린 결말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내가 소설의 결말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새로웠고 열린 결말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고민하며 반전은 없을지 꿈을 꾸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며 즐거웠다.”

“많이 접해보지 않는 분야가 아니어서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 읽을수록 비도슈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열린 결말이라 내가 상상하면서 글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작가의 관점이 되어서 글을 쓰니 색다른 경험이었다.”

“[...]결말을 내가 제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과제여서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창작을 하면서 재미도 있었다.”, “독자인 내가 직접 작품을 완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말을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다.”

“결말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새롭고 좋았다.”

이들 소감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보통 기존 작품에 나온 결말대로 작품이 끝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 작품 마지막 장면 다음 내용 이어쓰기 활동을 하면서 독자가 작품을 자유롭게 다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 학생들은 작품의 결말 다음 이어쓰기를 하면서 작품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결말을 설정하기 위해 작품을 반복해서 읽고 또 더 집중해서 읽게 되면서 더 깊이 작품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다시쓰기 과정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결론 다음 이어쓰기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단지 그냥 짧은 소설을 읽을 때 보다 작품을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깊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마지막 부분을 소설 속 내용에 기반 해 이어쓰기를 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창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상상력도 창의력도 늘었고, 이 작품에 대해 이해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창작을 한다는 점에서 소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읽고 다음 단락 이어쓰기를 해야 해서 다른 시선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해서 더 집중해서 읽은 것 같다, 앞으로 책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더 집중해서 읽을 것 같다.”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 단락이어쓰기를 하면서 평소에는 책을 한번만 읽지만 여러 번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집중하여 읽게 된 것 같다. 여러 번 읽다보니 주인공인 비도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론을 이어 쓰면서 평소 열린 결말이어도 따로 결말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활동을 통해 결말을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게 되었고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미 있는 마지막의 마지막을 써내려간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작품에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결말 다음의 장면을 창작하기 위해 작품을 여러 번 읽게 되어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작품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로 볼 때 작품 마지막 단락 뒤에 올 단락을 창작하여 작품 새롭게 완성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을 주의 깊게 찬찬히 음미

하며 읽게 되고 작품 내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롤랑 바르트는 모든 진지한 독서는 ‘다시 읽기’라고 한 바 있는데, 이때 바르트가 말한 다시 읽기는 반드시 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구조를 자신의 시야에 넣고 읽는 것을 의미하며 방향을 갖고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히라노 게이치로, 2006, 8쪽). 그런 의미에서 창작의 방향을 가지고 다시 쓰는 작업은 내재적으로 다시 읽기를 동반한다. 에밀 파케는 배움을 구하기 위해서든 비평을 하기 위해서든 혹은 책의 가치를 느끼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책을 읽을 것을 권하였다(에밀 파케, 2014, 17쪽). 작품을 읽고 결말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책 속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면서 책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천천히 읽게 되므로 작품 읽기와 연계한 다시쓰기는 에밀 파케가 제안하는 ‘느리게 읽기’의 한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은 자신이 작품의 창작자의 입장이 되어 작품을 다시 마무리하면서 비도슈의 삶에 위로를 주고, 그의 소망이 성취되게 해주고 싶었다는 의견들을 주었다.

“나는 비도슈가 행복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여 최대한 그가 행복할 수 있는 결말로 끝을 맺었다. 아마 작가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그렇기에 행복한 결말을 안겨준 것 같다.”

“결말을 쓸 때는 비도슈가 성취를 했으면 좋겠어서 좋은 결말을 썼다.”

“내가 작가가 된 것처럼 라파엘 비도슈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이어 썼다.”

“비도슈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마지막을 조금 행복하게 바꾸어주었다”

“글의 주인공 라파엘이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꼭 보장을 받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어쓰기를 하면서 위대한 피아니스트 라파엘로 이어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스토리의 결말을 꾸민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장 하나에 비도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비도슈의 가치관과 감정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수십 번 읽으면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정이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행복한 방향으로, 교훈을 얻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등장인물에 시련을 주는 것 또한 시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완성된 스토리의 결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책임과 무게를 느꼈다고 고백하며 주인공의 감정에 감정이입이 되어 최대한 행복한 방향으로 작품을 마무리해주고자 하였다고 썼다. 작품 마지막 이어 쓰기는 책을 읽고 책이 주는 영향에 갇히지 않고 책에서 자기 발로 걸음을 내디디는(나쓰카와 소스케, 2018) 능동적 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일부 학생들은 작품 주인공의 삶에 변화를 주고 치유와 회복의 결말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비도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의 마지막 내용을 내가 쓰게 되어서 어떻게 쓸까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비도슈를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 좋았다.”

“불행한 비도슈 내용만 읽다가 행복한 결말을 생각하며 글을 쓰다 보니 나도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작가의 입장이 되어 작품 속 인물에 행복한 결말을 선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적어주었다. 이는 문학작품 읽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고 성찰한 것에서 출

발하여 작품의 결말을 재창조하는 리텔링 창작활동 또한 치유와 자아회복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작품 마지막 단락 다음 단락 이어쓰기로 작품을 깊이 있게 찬찬히 음미하면서 읽고 작품 속 인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작품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결말을 재창작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문학 작품 읽기 연계 리텔링은 기존 작품 속 사유에 독자 자신의 생각을 접붙여 새로운 가치를 이어나가는 작업으로 그 내부에 비평 활동이 포함될 뿐 아니라 기존의 텍스트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점에서 창조적 사고와 표현 활동이 될 수 있다(고영화, 1999, 224쪽).

### 3. 문학 작품 읽고 다시 쓰기에서 나의 미래 미리 쓰기로

본 수업에서 시행한 다시쓰기 마지막 활동으로 원작의 결말 재창조하기를 응용하여 “내가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현실의 여건을 생각해보고, 20년 후 2041년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상상하며 일기나 메일, SNS 글로 작성해보기”를 하였다. 자신의 미래 일상 미리쓰기는 학생들이 앞서 시행한 투르니에 작품 읽기와 연계한 결말 다시쓰기를 통해 주인공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가치를 반영하여 기존 작품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결말을 재창작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자아 정체성을 설립해나가는 창작이다. 미래일상 미리쓰기는 원작 텍스트에 연결한 글쓰기가 아닌 점에서는 원작의 리텔링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미리 글로 써보는 것도 원작의 결말 이후의 작품 방향을 재설정하고 결말을 다시 창작하는 결말 이어쓰기 리텔링의 연장선에서 현재 자아의 모습을 성찰하고 미래 자신의 자아상을 설정하고 자신의 미래 일상을 상상하여 창작하는 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와 연계한 리텔링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미래 일상 미리쓰기는 리텔링으로 변화시키고 재설정하는 스토리의 주체와 소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리텔링 사유의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거두어들이는 작업이고 또 시선을 지난 과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로 드는 작업이다. 자신의 미래 일상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적 자아 성찰이자 미래 정체성을 정립해나가는 시도이다. 미래의 자신의 일상을 가정한 일상 글쓰기의 예를 소개한다.

“올해는 내가 불혹에 접어드는 해이고 오늘은 나의 40대 처음 맞이한 10월의 어느 맑은 주말이다. 10월이 좀 지나면서 추운 바람이 불어오기에 창문을 닫고 잠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창밖의 맑은 햇살은 두꺼운 유리를 뚫고 내 얼굴에 들이박았다. 날이 너무 좋기에 구청 근처에서 장을 볼 겸 산책을 좀 했다. 미뤄왔던 이불도 깨끗이 빨아 밖에 널고 집안의 창문들을 활짝 열어 청소도 했다. 뽀송하게 잘 마른 이불을 걷어 장롱에 넣고 거실에 앉아 어제 널어놔던 수건과 옷가지들을 개면서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휴식을 즐겼다. 나는 이렇게 별 탈 없이 지내왔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도 눈물 나게 슬펐던 일, 또 소소하게 행복했던 일도 있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면 적당히 화도 내고 화를 내면서도 웃는 그런 나날을 보내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쌓아놓은 나의 소모품들을 사주셨던 어머니의 용돈에서 벗어나 나의 직장에서 얻은 월급으로 생필품을 사는 사람이 되었고 오로지 나의 것인 것도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런 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첫 대학에 입학했던 스무 살의 나와 현재 마흔 살의 나는 다른 점이 별로 없다.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철부지 성인은 여전히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신기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익숙한 것들을 잃어가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의 일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름이 되어줘서 좋은 점만 남겨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나는 계속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온정을 나눠주어도 내 안의 온정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나면 소

중한 내 사람들과 작은 신념을 지키고 어떤 행동에도 흔들리거나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예시 글에서 학생은 20년 후의 소소한 일상을 실감 나게 일기에 담아내고 있다. 대학생 때와 마흔 살 때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나간 과거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름이 되어 좋은 점만 남겨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이 학생의 미래 일상 쓰기에서 성숙한 인격을 향해 노력해가고자 하는 추구를 볼 수 있다. 또 이 학생이 그리는 미래 자아정체성에는 사람들에게 온정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도 담겨 있다.

또 다른 한 미래 일기 예시에 담긴 소소한 일상을 소개한다.

“날짜 : 2041년 10월 어느 멋진 날

가을이 찾아왔다. 2041년 10월 어느 날,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든든하게 챙겨먹고 후다닥 나갈 준비를 한 후에 직접 운전을 해서 8시쯤 초등학교에 도착해 급식실로 향했다. 늘 그랬듯이 조리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업무를 보기 위해 급식실 한쪽에 있는 교무실에 들어가 다양한 서류들을 정리도 하고, 다시 조리실로 나가 조리사분들과 급식 준비도 함께 했다. 12시부터 유치원생들부터 저학년, 고학년 순으로 급식이 시작되었다. 유치원생들 급식이 시작되었을 때는 조리실에서 나가 급식실에서 배식 받는 걸 도와줬다. 아무래도 어리다보니 저학년, 고학년보다 유치원생들은 더 신경 쓰이고 도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앞에 나가서 유치원생들과 선생님을 도와 배식을 했다. 유치원생들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부터는 1,2학년이 급식을 먹기 위해서 한 줄로 차례대로 들어온다. 지금부터는 조리실과 급식실을 오가며 조리사분들이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뭐가 부

족하지는 않는지 살피며 조리실과 급식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다. 고학년들까지 모든 급식 지도가 끝나고 조리사분들과 점심식사 후에 잠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조리실로 들어가 조리사분들이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나는 다시 교무실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더 영양가가 높은 식단을 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도 찾는 등으로 식단표를 짰다. 유치원생 오후 간식까지 챙겨준 후 뒷정리를 하고 신나게 집으로 향하며 퇴근해 알차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이제 더 이상은 초보 영양사가 아닌 안정적으로 급식실과 조리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엿한 17년차 멋진 영양사가 되었다.”

이 예시 글에서 학생은 20년 후 자신의 전공으로 진로의 꿈을 실현하며 일상에 애정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마치 평소 자신의 일상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미래 자신의 일과를 묘사하고 있는 이 글에는 학생의 미래 비전에 대한 설계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지향이 녹아 있다. 나의 미래 일상 미리쓰기는 있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기표현이라기보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자아를 성찰한 후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박순원, 2012, 170쪽)으로서의 글쓰기이다. 이처럼 본 수업에서는 미래 미리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통합하여 자기 성찰을 얻[고]”(이명미, 2020, 71쪽) 나아가 자기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보도록 하였다. 미래 일상 미리 쓰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인생에 대해 성찰하도록 해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실천 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자는 대학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스토리텔링 학습의 연장으로 수행한 문학 작품 읽기와 연계한 다시쓰기 수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선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투르니에의 단편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를 함께 읽고 조별활동에서 작품에 대한 느낌과 소감을 나누고 각자 작품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선정하여 조원들과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작품을 음미하고 작품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본 수업에서는 문학작품 읽기 연계 작품 결말 다음 단락 이어쓰기와 작품 읽기를 바탕으로 자기 미래 일상 미리쓰기의 두 가지 리텔링 활동을 하였다. 첫 번째 작품 결말 이어쓰기 리텔링에서는 그 방향을 치유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기존 작품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결말을 재창작하는 동안 인물의 삶과 운명에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치유의 주체로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시행한 미래일상 미리쓰기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의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신이 바라는 미래 자아상을 이미 실현된 것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며 구체적인 일상으로 형상화해보도록 하였다. 치유와 회복의 방향으로 기존 작품의 결말을 재조정하고 인물의 운명을 재창조하는 작품 결말 이어쓰기 리텔링과 자기 자신의 미래 자아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미래 일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리는 미래일상 미리쓰기 리텔링은 상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나가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된다.

본 수업에서 문학 작품 읽기와 연계하여 시행한 작품 결말 이어쓰기 리텔링 활동은 읽기-생각하기-표현하기의 유기적인 통합 학습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리텔링은 작품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고력, 자신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고 발견하고 생각한 내용들을 글과 말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 작품 속의 문제적 상황들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들을 창안



해내는 문제해결능력을 아울러 함양하는 것을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읽기와 연계한 다시쓰기는 작품에 담긴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을 음미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작품에 담긴 문제들을 독자 나름의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작품 재창작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에서 시행한 미래 일상 미리 쓰기는 문학작품 읽기와 연계한 리텔링의 시선을 독자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방향 재설정과 재창작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미래 자아상을 이미 실현된 것으로 생생하게 떠올려보고 구체적인 일상 속에 녹여내는 미래 일상 미리쓰기는 보이지 않는 인생항로에서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나침반과 같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점에서 실천 인문학의 가치가 있다.

## 참고문헌

- 고명신(2017). 문학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수업 방안. 리더러시연구, 21, 245-285.
- 고영화(1999). '다시쓰기 ( rewriting )' 활동에 비평적 성격에 대하여 - 전래 동화 다시 쓰기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3, 223-240.
- 곽동우(2011). 독서 혁명, 은행나무.
- 김시천 기획 대담, 박석준 외 지음(2016). 미래 인문학 트렌드, 아날로그.
- 김영희(2012). 구전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을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구비문학연구, 185-242.
- 김호연(2012). 역사 리텔링과 상흔의 치유- 구술사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1, 31-54.
- 나쓰카와 소스케(2018).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이선희 옮김, arte.
- 레진 드탕벨(2017).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들, 문혜영 옮김, 펄북스.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2007). 생각의 탄생, 박종성 옮김, 에코의 서재.
- 미셸 투르니에(2002). 기쁨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성탄절 이야기. 꼬마 푸세의 가출, 이규현 역, 현대문학.
- 박순원(2012). 자기 형성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방법 연구. 우리어문연구, 43, 153-175.
- 박영기(2015). 소통과 배려를 위한 독서와 글쓰기 수업 사례 연구 - 글로벌 시대 교양교육의 새로운 모색. 대학작문, 11, 127-160.
- 박태진(2012). 문학독서와 문학창작을 통해 형성되는 자가치유제의 교육적 의의 탐색. 한어문교육, 27, 75-106
- 사고와표현교재편찬위원회(2019). 사고와표현, 서원대학교출판부.
- 서기자(2015).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의 융복합적 연구 방법. 문화와융합, 37, 286-308.
- 손동현(2007).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양기초교육. 교양교육연구, 1(1), 111.
- 송기정(2013). 여성주의 관점에서 역사 다시 쓰기 - 앗시아 제바르의 <메디나에서 멀리>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66, 115-139.
- 알베르토 망구엘(2000). 독서의 역사, 정명진 옮김, 세종서적.
- 엄찬호(2010).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5.
- 에밀 파게(2014). 단단한 독서, 최성웅 옮김, 유유.
- 유강하(2010). 틈새를 매우는 문학적 상상력 '리텔링'. 중국어문학논총, 63, 445-469.
- 유강하(2010). 스토리텔링과 리텔링 : 《妻妾成群》과 〈大紅燈籠高高掛〉의 비교연구를 통한 인문치료 방법론 모색. 중국소설논총, 31, 469-492.

- 유강하(2017). 고전 다시 쓰기와 문화 리텔링, 단비.
- 유예진(2010). 프루스트와 화가들, 현암사.
- 이명미(2020). 메타픽션을 활용한 글쓰기 치료 기법 연구. 문학치료연구, 55, 71-104.
- 이명현(2015). 고전소설 리텔링(Re-telling)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자기표현 글쓰기. 우리 문학연구, 48, 137-161.
- 이명희(2013). 고전 리텔링(re-telling)을 통한 창조적 글쓰기와 인문학적 성찰. 문학치료, 26, 305-332.
- 이선화(2010). 프랑스현대극에 나타난 다시쓰기의 미학 : 메테를링크의 <조아젤>과 세 제르의 <어떤 태풍>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3, 292.
- 이은숙(2021). 문학 리텔링 독서의 치유성 : <이방인>의 세 가지 죽음에 대한 글쓰기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9), 429-448.
- 임화순, 김구, 남윤섭(2012). 문학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 소설 <지상에 순가락 하나>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0, 139-170.
- 정성미(2016). 과정중심 글쓰기의 관점에서 본 치유의 글쓰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1), 379-402.
- 조성미, 유강하, 고혜진, 이소정, 김학찬(2022). 설화 리텔링을 통한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413-437.
- 플루타르코스(2020).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 임희근 옮김, 유유.
- 한래희(2013). 대학 교양 고전 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 - 읽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0, 383-423.
- 황혜영(2022). 다시 사고와 표현을 생각하다. 충청일보, 2022.04.13.
- 히라노 게이치로(2006). 책을 읽는 방법, 김효순 옮김, 문학동네.
- Lefevere, A.(1987). "Beyond Interpretation" or the Business of (Re)Writing,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24(1), 17-39
- Taylor, D.(1996). *The Healing Power of Stories*, Doubleday.
- Gunther, M. A.(2004). *Critical Analysis of Literature: Making the Connection between reading and writing*, *The English Journal*, 89(4), 85-88.
- Calle-Gruber, M.(2004). *L'essai comme forme de réécriture : Cixous à Montaigne*, *Études françaises*, 40(1), 29-42.
- N. L. Anderson and Briggs, C.(2011). *Reciprocity Between Reading and Writing: Strategic Processing as Common Ground*, *The Reading Teacher*, 64(7), 546-549.

## Abstract

### Analysis of Retelling Cases Linked to Reading in Thinking and Expression - Focusing on Reading Michel Tournier's "Let Joy Remain in Me"

Hye-young Hwang  
Seowon University

Eun-Sook Lee

Hyun-Sook Chung

Kyemyung University

'Thinking and Expression' develops comprehensive problem-solving ability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life and society by cultivating thinking skills such as creative, logical, reflective thinking, and connected thinking and communication ability to communicate one's thoughts through writing and speaking. This is a college basic liberal arts course established to improv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ase of rewriting of literature reading and healing performed as an extension of storytelling learning in 'Thinking and Expression' class. In class, we read Michel Tournier's short story "Let Joy Remain in Me" and shared our feelings about the final scene of the work. Then, we each presented a question that came to mind as we read the work, and we shared our thoughts with the members of the group. Next, the students created the content that will follow the last scene of the work with the direction of healing. Through this, we tried to read the work carefully and deeply appreciate its contents, and we had time to feel the creative experience of the reader re-creating the meaning of the work and the effect of healing rewriting. Then, we turned the direction of reflection to the realm of the reader's own life and expressed their desired future self in writing, imagining that it had already been realized. Through this, we tried to discover the meaning of practical rewriting towards self-actualization.

**Keywords:** *Retelling, Rewriting, Healing, Michel Tournier, Thinking and Expression*

논문투고일자: 2021.12.07.

논문심사일자: 2022.04.18.

게재확정일자: 2022.04.22.